

현대의학의 위기 진단하는 대체의학서들

질병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의학의 변혁 요구해...
대체의학의 철학, 역사, 방법, 한계 등 짚어

현대의학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질병 중심주의와 약물 지상주의, 신기술 만능주의에 가차없이 메스가 가해진다.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건강한 몸의 구현을 지향하는 종합의학적 흐름도 생겨났다. 대체의학이라 불리는 이 움직임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상호보완하고, 몸의 자연적 치유능력을 계발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환경, 노동의 거시적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



의료제정 파탄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의료계의 '급소'를 겨냥한 책들의 출판이 줄을 이어 눈길을 끈다. 이들 책의 논조를 한마디로 대변하면 "현대의학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았다"는 것. 인간복지를 이끌어온 현대의학의 '과학 신화'가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의료 선진국 미국의 감춰진 병폐들

한 의사의 '고해성사'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일러준다. 최근 번역 출간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로버트 S. 멘델존, 남점순, 문예출판사)는 명망있는 한 소아과 의사가 1970년대 미국 의료현

실을 고발한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시종일관 신랄한 문체로 의료계의 부조리한 관행, 의학 지식의 허구와 오류를 꼬집었다.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사, 죽음을 부르는 항생제, 은폐되는 의료사고, 속임수와 날조로 점철된 의학논문의 실상을 접하다 보면 병원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기는커녕 사고를 조장하는 범죄 소굴로 여겨진다. 그런데 씌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의 사례를 일반화한 측면도 있어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위기》(멜빈 코너, 소의영 외, 사이언스북스)를 펼쳐들면 앞서 말한 문제가

21세기에도 고스란히 '유전' 됐다는 점을 깨닫는다. 하버드대 인류학 박사이자 신경정신과를 수료한 지은이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병의 '치유'보다는 '정복'에 더 관심을 쏟는 차가운 메스라고 비난한다. 비판의 축수가 가장 먼저 닿은 곳은 과학의 비호 아래 합리화되는 의료구조 자체다. 지은이에 따르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가로놓인 '침묵'이 그 모순을 상징한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과도하게 추구한 현대의학이 '의술'의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연간 3천5백만 명이 보험료를 못내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통계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다른 선진국들

제도적 차원에서 대체의학 정착돼야

《한국에서 의를 논한다》 펴낸 이종찬 교수



이종찬 교수(44, 아주대 의대)는 그동안 《서양의 두 얼굴》(한울) 《한국 의료 대논쟁》(소나무) 등의 책에서 동서양의학사를 면밀하게 탐구하고, 의학에 인문주의적 사유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책에서 이교수는 그간 연구를 종합하며 새로운 의학의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 우리사회의 의료 위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보건의료가 상품화되면서 의사-환자 관계를 거래하는 사이로 변질시킨 것, 일상 생활이 지나치게 의료화되면서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의학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의 판단·관리 대상으로 전락한 점,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가세하면서 계층간 의료복

지 수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 등이다."

— 대체의학 개념이 너무 폭넓게 사용되는 것 같다.

"대체의학의 내부에는 다양한 흐름이 공존한다. 서양의학의 생화학적 패러다임을 전복하려는 것, 만성질환 치료를 보완하려는 요법 중심주의, 서양의학을 우리의 것으로 체화하려는 노력, 의료를 질병퇴치가 아닌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려는 전환적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 대체의학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서양의학에만 기초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체의학적 시술을 의료보험 대상에 흡수해야 한다. 또 민간요법을 합법화해 환자의 의술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체의학 관련 '라이선스'가 생겨, 무분별한 상술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이다."

에 비해 그리 '인간적' 이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미국 의료시스템의 판박이인 한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대로 들어맞는다. 《한국에서 의를 논한다》(이종찬, 소나무)는 '현대의학'의 형성 패러다임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한국 근대의학 100년사를 비판적으로 정리했다. 지은이는 서양의학의 생화학적 기초가 제도화되고, 몸을 관리하는 규율-권력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을 의료의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진단한다. 데카르트의 기계주의와 뉴턴적 수학기초에 젖었을 땐 '질병은 곧 인체 고장'이라는 인식, 세균·면역·바이러스·종양 등의 '질병' 환원주의, 병균 분류도를 설계도 삼아 지어 올린 병원. 지은이는 이 체계가 자본주의와 만나 보건의료를 상품화하는 등 부정적 양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대체의학의 다양한 모색 소개하는 책들

결론에서 지은이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물·공기·생활공간과 맺는 상호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의 복귀를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국부처방에서 벗어나 전인치료로 의술전반이 탈바꿈하고, 나아가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는 양생술과 예방의학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위기진단 속에서 현대의학 '수혈자'로 '대체의학'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의학, 새로운 삶》(오홍근 외, 창작과비평사)은 대체의학 소개서다. 각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모은 이 책은 현대의학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되짚고 약점을 보완하는 대체의학의 개념과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대체의학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자연치유능력에 맞춰 조율하고 복원하는 의학이다. 이는 생물학적 산물을 약재로 삼고, 예방의학적 입장을 중시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학에 관심을 둔다. 근육의 이완과 골격의 교열을 정비해 내부장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카이로프랙틱, 물을 이용해 몸의 순환과 배설기능을 촉진하는 물 요법과 그 외 동종요법, 아로마요법, 침술과 약초학 등이 치료방법이다. 대체의학의 내용이 이렇듯 다양한 것은 과학주의 서양의학이 정통의학으로 군림하면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온 의술과 요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의학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기능성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 내지 말기 암환자 관리를 도와주는 보조적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인간 중심적 진료와 보살핌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인공화학약물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의료비도 지금보다 훨씬 절감될 수 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한국적 대체의학의 정립을 위해 대체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소개와 교육, 연구발전이 시급한 단계라고 말한다. 또 한양방 이원적 의료체계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위의 책이 대체의학 철학을 짚는 총론이라면 각론에 해당하는 요법 위주의 설명서들도 여럿 나왔다. 《새로 찾는 생명, 21세기 건강의 길》(프란시스코 콘트라레스, 전홍준, 에디터)은 현대 의료시스템과 의학을 다양한 실례를 들어 분석, 비판한 토대 위에서 대체의학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암 대체요법 전문의인 지은이가 사용하는 '홀리스틱'(holistic) 요

“현대의학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삼가해야”

한국대체의학회 회장 전세일 교수



한국대체의학회 회장 전세일 교수(66)는 국내에 대체의학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오래 전부터 매달려왔다. 그러다가 지난 1996년 정회원 350여명의 학회를 출범시켰다. 또 이번 2001년에 신설된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초대원장을 맡아 대체의학의 기초학적 탐구와 대체의술의 교육과 훈련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대체의학의 출현이 “현재 의료시스템의 내부 모순, 의학 외적인 사회문화 현상과 불가분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북미 등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정리한다. 하지만 전교수가 전하는 대체의학의 국내 연구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임상실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교수는 또 요즘 쏟아지는 현대의학 비판서들이 제도권 의학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현대의학의 질병 치료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의학은 항상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의학을 현대의학의 ‘보완’으로 인식해야지 ‘대안’ 개념으로 보는 시각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전교수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듯 현실을 왜곡·호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근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합하는 한 차원 높은 종합의학의 창출에 그는 주목한다. “한 의학은 과학적 방법론이 취약하고 서양의학은 인간생리에 대한 철학적 이해력이 미흡하다. 건강관, 질병관에 대한 인식과 상호편견을 좁혀나가고, 임상과 진료 및 의료제도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교수는 의료계의 인식전환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

법은 신체조직을 절제한다거나 태워버리는 방법과는 달리,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자연식품을 투여해 환자 스스로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다. 《체질의학 혁명》(정의영, 청계)은 동양의학과 서양 의학을 아우르면서, 증거에 기초한 생명현상의 철학적 해석과 새로운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학문적 내용을 대화체 형식을 빌어 부드럽게 전개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동양 의학》(오스카 야스오, 이광준, 소화)은 동양의 신체관과 질병관, 본초의 역사, 한방의 진단법과 한방약 등을 풀어쓰고 있다. 약 용량 및 맥진과 복진 등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한방시스템이 어떤 특징으로 서로 구별되는지 잘 알 수 있다.

물론, 지난 1백년간 다져진 현대의학 패러다임의 변환, 동서철학 접점모색을 통한 대체의학의 정립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 단순히 의학·의술·의료의가 아니라 보건의료·복지·환경·노동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의 새로운 틀과 연계시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책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낯은 인식을 계몽하는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 강성민 기자